

# 달의 주기 - The Cycle of the Moon

## 서론: 신부 된 교회

우리가 성경말씀에서 각별하게 야의 백성들을 여자로 비슷하게 말한 것을 더욱 뚜렷하게 찾아 볼 수 있다; “참된 신부”와 같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혼인하듯이 내 아들들이 너와 혼인할 것이요, 마치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듯이 내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리라.” (이사야 62:5) 아주 시초에 있었던 사람의 결혼 관계가, 실제로 그분께서 그분의 충실한 피조물들과 함께 언약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분의 소망을 생생하게 묘사하여 나타낸 것이다.

에스겔이 대단한 묘사로 비유하여 이스라엘 국가에게 강력한 책망을 하였다. “너의 출생을 말하자면, 내가 태어난 날에 네 땃줄이 잘려지지 않았고 너는 물로 씻겨져 부드럽게 되지도 않았으며 네게는 소금도 전혀 뿌려지지 않았고 포대기에 싸이지도 아니하였도다. 이 중 어떤 일을 내게 행하고 너를 불쌍히 여겨 너를 궁핍히 여겨 줄 어떤 눈도 없었으니 도리어 내가 태어난 날에 네 생명이 꺼려진 바 되었으며 너는 들판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네 곁을 지나면서 네 자신의 피로 더럽혀진 너를 보고 네가 피로 젖어 있을 때에 내가 말하기를 ‘살아라.’ 하였으며, 또 네가 피로 젖어 있을 때에 내가 말하기를 ‘살아라.’ 하였느니라.” (에스겔 16:4-6)

야께서 그들을 회개하도록 낮추시고, 그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교도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것을 상기시키신 것이다; 그들이 그분의 사랑으로 돌아올 수 있기 전에도 그들을 사랑하셨고, 또 어떻게 그분 자신이 그 국가를 초기부터 성숙하도록 일으켜 세웠으며, 또 그녀에게 가장 좋은 선물들을 그들의 생애를 통하여 주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내가 너를 들의 찌꺼기처럼 번식케 하였더니 내가 자라고 장대해져서 네가 우아한 장식을 하였으며, 네 가슴이 형성되고 네 머리털이 자랐으나, 너는 어디서나 벌거벗은 알몸이었느니라. 이제 내가 네 곁을 지나며 너를 보았더니, 보라, 네 때가 사랑의 때라. 내가 내 옷으로 네 위에 펴서 네 벗은 몸을 덮어 주며 네게 맹세하고 너와 더불어 언약을 맺어 내가 내 것이 되게 하였느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에스겔 16:7,8)

사람이 옷으로 여자를 덮어 주는 것은 그녀를 아내로 취한다는 상징이고 (룻기 3:9) 또 야께서 그분의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그분의 아내라고 설명하셨다. 불행하게도, 그분이 계속하시고자 한, 이 결혼이 이상적인 결혼이라고 일컬을 수 없었다. “그러나 너는 네 자신의 아름다움을 믿고 네 명성으로 인하여 음란한 짓을 하고 지나가는 모든 자들에게 네 음행을 쏟았으니 아름다움이 그들의 것이 되었느니라. 네가 벌거벗고 입지 않았으며 또 네 피로 더러워졌을 때 네 모든 가증함과 네 음행 가운데서 너는 네 젊은 날들을 기억하지 못하였도다.” (에스겔 16:15,22) 물론, 우리 아버지께서는 자비로우시므로, 그분의 아내에게 반대되는 “문제”를 방지하지 않으시고 책망하시며, 또한 그분께서는 그녀가 불행에 떨어짐을 허락하고, 또 그녀의 ‘사랑하는 자’를 처벌하여, 그녀가 그녀의 남편을 기억하고 그분에게 울부짖게 하신다. 그분이 결론적으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언약을 파기함으로 맹세를 멸시하여 행한 대로 내가 너를 다루리라. 그렇지만 나는 너의 어린 시절에 너와 맺은 나의 언약을 기억하며 너에게 한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그러면 네가 네 자매, 즉 네 언니와 네 동생을 받아드릴 때에 너는 네 행위를 기억하고 수치를 느낄 것이다. 내가 그들을 네게 딸들로 줄 것이나 네 언약에 의해서 가 아니니라. 또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러면 너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니.” (에스겔 16:59-62)

야께서 그분의 신부를 사랑하신다. 그들이 그분을 완전히 거절하고 그분의 형상 안에 있는 아들 야쉬와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지라도, 그래도 역시 그분께서 먼저 그분의 백성들에게 가서서 새로운 언약을 하셨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 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16)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 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라.” (로마서 2:10)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방인들이지만 (내가 유전적으로 유대인에 당치도 않지만) 신부에 일부분이 되었다. “그러나 만일 가지들 가운데 얼마가 꺾여지고 돌올리브 나무인 내가 그들 가운데 접붙여져서 올리브 나무의 뿌리와 기름진 것을 함께 받게 되었다면 그 가지들에게 자랑하지 말라.” (로마서 11:17,18)

야쉬와께서 그분의 썬스로 새 하나님을 우리에게 제시하여 “새로운 종교” 또는 새로운 체제를 신설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같은 신부**로써, 예배를 질서 있게 수행하고 있다. 우리가 야께서 시초부터 사랑하신 여자이며, 또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늘 안으로 받아들여질 그 여자다.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초대된 그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 하고 또 내게 말하기를 ‘이것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하더라.” (계시록 19:9) 지금 우리가 신부를 묘사한 것을 보면, 이 구절이 우리를 다음 부분으로 인도할 것이다.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났으니 한 여인이 해로 옷 입었고, 달은 그녀의 발 밑에 있으며, 머리에는 열두 별이 있는 면류관을 썼는데.” (계시록 12:1)

“해로 옷 입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여 설명한다. “내가 의로 옷을 삼아 입었으며 나의

공의는 도포와 면류관 같았느니라.”(욥기 29:14)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태양이 그의 날개에 치유를 가지고 솟아오르리니, 그리하면 너희는 나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처럼 자라리라.”(말라기 4:2) 그분이 “의에 태양”이시고, 그 여자는 그리스도의 의에 옷을 입었다. 그녀의 머리에는 열 두 별들의 면류관이 있고 - 면류관이 왕국을 표징하며, 또 야쉬와께서 그분의 열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겪는 시험에 나와 함께 있던 자들이니라.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왕국을 맡기신 것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가 나의 왕국에서 내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심판하게 하리라고 하시니라.”(누가복음 22:28-30)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들이 마지막 날에 “인침” 받을 것이고 (계시록 7장) 또 장차 하늘과 땅에서 구원받은 모든 자들로써 첫 열매들이 될 것이다. 그 여자가 열두 왕국들이 될 것이고, 제각기 그녀의 면류관에 별이 있을 것이다.

또한 말하기를, 지금 참된 신부는, “그녀의 발 밑에 달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무슨 뜻인가? 우리가 이 연구에서 그것에 대한 뜻을 검토한다.

## 1. 구약 성경에서 새 달

창조 네째 날에, 우리가 이러한 사건을 발견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낮과 밤을 나누기 위하여 하늘의 창공에 광명들이 있으라. 그것들로 하여금 징조와 계절과 날짜와 연도를 위해 있게 하라. 그리고 광명들은 하늘의 창공에 빛이 되어 땅 위에 빛을 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두 가지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은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은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별들도 만드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늘의 창공에 두시고 땅 위를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두움을 나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저녁과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더라.”(창세기 1:14-19)

해와 달이 “징조들과 계절들”로 주어졌다. 모든 이스라엘이 음력으로 시행하였다. “그가 달로 시기들을 정하셨으며, 태양은 자기의 지는 것을 아는 도다.”(시편 104:19) 또한, 달이 어두울 때, “새 달”의 첫날로 그들의 달들이 모두 시작되었다. 유대인들이 오늘날에도 그 달 첫 째 날에 주의를 끈다. (새 달이 다가오면) “유대력의 새 달이 시작” 된다.

구약 성경에서 새 달에, 흥미 있는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다. 새 달들이 항상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백하게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대 부분 새 달로 (초승달 New Moon) 명시하지 않고 “그 달 첫 째날”로 자주 언급하였기 때문이다. 노아 당시 홍수 후에, 먼저 물이 산봉우리들 아래로 내려갔다. “물이 시월까지 계속해서 줄어들어 시월 즉 그 달의 첫 째날 산지의 봉우리들이 보였더라.”(창세기 8:5) 역시 새 달에 물이 완전히 하강하였다. “육백일 년 첫째 달, 그 달의 첫날에 물이 땅에서 마른지라, 노아가 방주의 덮개를 치우고 보니, 보라, 지면이 말랐더라.”(창세기 8:13)

광야에서 새 달에 성소 장막을 세웠다: “너는 첫째 달 첫째 날에 회중의 장막의 성소를 세울지니라.”(출애굽기 40:2) 이와 같은 절기들이 많이 있었다. (레위기 23:24,39) 예언에 관하여, 대부분 에스겔이 받은 계시들이 어떤 달이든지 주어진 달에 첫 째 날이었다.

인간이 활동하는 범위 내에서 엄격한 표현들로써, 새 달들은 항상 자신을 반성하고 정결케 하는 때가 되었다. 아주 작은 예들을 들면: “둘째 달 ‘첫째 날’에 모든 회중을 함께 모으니 그들이 그들의 족속들과 조상들의 가문에 따라, 이십 세 이상으로, 그들의 이름들의 수대로, 자기들의 계보들을 공표 하니라.”(민수기 1:18) “또 제사장 에스라는 몇몇 족장들을 그들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명하고, 열째 달 ‘첫째 날’에 앉아 그 문제를 심사하여 그들이 첫째 달 ‘첫째 날’까지 타국 아내를 취한 모든 자들의 조사를 끝마쳤더라.”(에스라 10:16,17) 제사장 에스라가 일곱째 달 ‘첫째 날’에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남녀 회중 앞에서 율법 책을 읽어 주었다. (느헤미야 8:2)

성경말씀에서 맨 처음 새 달을 명백하게 언급한 것은, 요나단이 다윗에 관한 그의 아버지의 진의를 그 날 시험하였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일은 새 달이므로 내가 왕과 함께 식사에 앉아야만 하나, 나를 보내어 나로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어 있게 하라. 만일 네 아버지가 나를 찾거든 그때 말하기를 다윗이 나를 떠나 그의 성읍 베들레헴으로 달려가기를 내게 간절히 구하였나이다. 이는 거기서 온 가족을 위하여 해마다 드리는 희생제가 있기 때문이니이다.’ 하라. 만일 그가 잘한 일이라고 하면 네 좋은 평안하려니와, 만일 그가 심히 노하면 그가 악을 결심한 것이 분명하니라.”(사무엘상 20:5-7)

우리가 여자를 야쉬와의 신부로 배려하면 이 모든 것들이 완전한 의미가 있다. 역시 이 상징이 자연적인 여자에게는, 한 달에 한번 있는 정결케 함이 필요하지 않고 또 그것이 무의미한 것이다. 계시록 12장에서 “달 위에 서 있는 여자” 그녀 역시 음력으로 행한다; 바로 안식일이 우리가 매주에 안식하는 날인 것처럼, 새 달에 우리가 “한 달에 한번 정결케” 할 것이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새 달**을 안식일로 지킨 것을 분명히 지적하였다. 이것 둘 다를 자주 함께 언급하였고, 또 매주 안식일을 함께 언급하였으며, 그 날에 매매를 하지 않았고, 세속적인 일이나 또 필요치 않는 육체적인 노동을 하지 않았다. “새 달과 정해진 때, 곧 우리의 엄숙한 절기의 (영문) 날에 나팔을 불지니” (시편 81:3)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동쪽을 바라보는 안쪽 뜰의 대문은 일하는 욕일 동안은 닫아 둘 것이나 안식일에는 열어 두고 또 새 달의 날에도 열어 둘지니라.” (에스겔 46:1) “너희는 말하기를 ‘언제 새 달이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 수 있을까? 언제 안식일이 지나서 우리가 밭을 내놓되, 에바를 작게 하고 세켈을 크게 하여 저울을 거짓으로 속일 수 있을까? 그리하여 우리가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신 한 켈레로 궁핍한 자를 사고, 참으로, 밀 찌꺼기를 팔 수 있을까?’ 하는도다. 주는 야곱의 탁월함으로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의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모스 8:4-7)

바로 그 ‘달’ 자체가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그 신부, 바로 그 여자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 “그것이 (그들이) 달과 같이, 하늘에 있는 신실한 증인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서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시편 89:32) - 그와 같이 새 달 준수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고; 어린양의 영원한 아내가 영원히 반복되는 주요 부분이 될 것이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만들 새 하늘들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같이 너희 씨와 너희 이름도 항상 있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새 달부터 그 다음 새 달까지, 또 안식일부터 그 다음 안식일까지 모든 육체가 내 앞에 경배하러 오리라.” (이사야 66: 22,23) 이것이 요지가 되는 것은, 이 구절을 기본적으로 사용하여 안식일이 영원한 법령임을 보여 주었고, 또 자주 이와 같은 상태에서, 새 달을 함께 계속 언급하였다.

## 2. 신약 성경에서 새 달

신약 성경에 **새 달**이 있는가? Yes, 그것이 실제로 있다. 그것이 오직 한 번 언급되었다. 그렇지만, 성경상의 많은 절기들을 야쉬와와 바울이 보통 활동하는 것들의 실제로 언급한 것이다. (누가복음 2:41,42; 요한복음 7:2, 사도행전 27:9, 18:21, 고린도전서 16:8) - 그리고 이 모든 다양한 **새 달**의 기간들을 계산하여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성경 한 곳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언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의 합법성을 실제로 부인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바울이 골로새인들에게 서신으로 기록하기를 **안식일과 새 달**, 야의 법들이 사람의 관례들과 정반대가 된다고 하였다. 그가 기록하기를 “아무도 자의적인 겸손과 천사들을 숭배함으로 너희의 상을 속여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는 보지 않은 것을 억지로 주장하고 자기 욕신의 생각으로 헛되이 과장하며, 머리를 붙들고 있지 아니하니, 온 몸이 머리에서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영양을 공급받고 엮어져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골로새서 2:18,19)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 자라고 있으며, 그의 기록이, 지혜와 참된 지식이지만, 사람들은 그들의 자만심으로 부풀어올라서 다른 자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이런 것들이 의지 숭배와 겸손과 금육에는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나 육체를 만족시키는 어떤 자랑은 (영문)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골로새서 2:23)

이는 바울 자신의 기록들을 사용하여 많은 사람을 속이므로, 참으로 어이없는 상태가 되었다. 사도 베드로가 기독교인들에게 이것에 대하여 조심하라고 경고하였다. 그가 마지막 때를 말하고, 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새 하늘들과 새 땅] 기다리고 있으니 점 없고 흠 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 분께 발견 되도록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생각하라.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그렇게 썼고, 그의 모든 편지에서도 이런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는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어 무식한 자들과 견고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베드로후서 3:14-16) 무식한 자들과 견고하지 못한 자들이 바울이 교훈한 서한에서 그들에게 불리한 문단들에 의도를 능가하여 투쟁하고, 또 그들 자신을 멸망에 이르게 하고, 마찬가지로 다른 자들도 길을 잃도록 인도한다.

바울의 기록들을 지혜로 읽어야 할 것이고, 또 거룩한 영으로부터 통찰력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보통 사람’에게 아주 복잡한 것이 아니다: 제사장이 야의 말씀에 의하여 지혜있는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우리는 보좌로부터 온 영감과 지혜를 가져야 함은, 이것에 의하여 우리가 모든 지식을 갖게 되고, 또 이것 없이는 우리가 바벨론의 시민들이 되어 - 큰 혼동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바울의 기록들에서 “어려운 문단들” 중에 하나를 지금 보고 또 영이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할 수 없는지 볼 것이다. 여기에 **새 달**을 언급한 문단이 있다: “그러므로 음식으로나 마시는 것으로나, 거룩한 날이나 새 달이나 안식일들에 관해서는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골로새서 2:16,17)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안식일 지키는 아주 좋은 사람들이 “안식일들”을 광대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하나 확실한 증거가 없이 입증하는 것이다. 여기에 성경적인 절기들이 있고, 또 바울이 “어떤 다른 것”으로 말한 의도가 있다. 그렇지만, 영어로 추가된 단어 “날들”이 - 그가 참으로 매주에 안식일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영어로

추가된 **또 하나의** 단어로 된 문단이 그 장 전체의 뜻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독자가 위에서 읽은 것을 기억하면, 바울이 골로새서 2장에 기록한 야의 법과 사람들이 만든 법들이 반대가 된다. 그가 그 둘 사이에 다른 것들의 실례들을 반복해서 보여주었고, 또 이것이 바로 또 하나의 실례이다. 여기에 또 영문 편집자에 의하여 추가된 단어들인 문단 괄호 안에 있다: “그러므로 음식으로나 마시는 것으로나, 거룩한 날이나 새 달이나 안식일[들]에 관해서는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지금, 이 문단이 정확하게 지적한 것은 야쉬와의 죽음 후에 새 언약이 창설되었고, 여전히 거룩한 날들이나, 새 달 또 안식일이 여전히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다. 등등., 장래에 일어날 사건들이다. 그러므로 그것들이 **소멸되지 않았다**.

그리고 더 더욱 분명하게 골로새서 2장에서 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추가된 두 단어를 우리가 빼내고, 그 문단을 간단한 언어로 정확하게 읽으면: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외에는, 음식으로나 마시는 것으로나, 거룩한 날이나 새 달이나 안식일에 관해서는 [이 모든 것들로]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니라.” (골로새서 2:16-17) 이 모든 것들이,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므로, 오직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외에는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오직 여자의 몸이 그녀의 때를 안다. 신랑을 기다리는 그녀가 유일하게 “달 위에서 있는” 여자며 한 달에 한번 그녀 자신을 반성하고 정결케 한다. 오직 메시아의 몸 된 (교회)가 성경말씀에서 영과 글씨로 배워서 규칙적으로 안식일들을 지키는 것과 성화 된 생애와 좋은 음식물을 판단 할 수 있는 것이다.

초기 교회에서 할례에 관하여 논쟁이 있었을 때,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함께 논의하기 위하여 모였다.” (사도행전 15:6) 그들이 의견차이가 있었지만, 여전히 멤버들이 옳은 것을 신설하기 위하여 사람이 만든 법정으로 가지 않았고, 또 그들이 국가의 권력을 사용하여 그들의 교리를 신설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들이 교회로 왔다. 야고보가 회의에서 이 선언서로 종결지었다. “그러므로 내 판단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을 우리가 괴롭히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글을 보내어 우상으로 더럽혀진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삼가게 하자는 것이다. 이는 예로부터 여러 성읍에서 모세를 전파하는 자들이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이 읽혔음이라고 하더라.” (사도행전 15:19-21)

주목할 점: 그 회의에서 “음식과 마시는 것”에 대한 문제들을 옳게 판단하였고 또 “거룩한 날,” 안식일을 존중하였으며, 그들 회의에서 새로 들어온 개심한 이방인들이 매주 일곱째 날에 받는 교육이 시나각에서 모세의 가르침들을 배우는 것이었다. (음식들, 우상들 등등.) 이것이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정확하게 언급한 것을 지키는 것이었다. “이러한 것들은 그대 자신 마음 대로다, 그것들을 그대가 원하면 지켜라.” No. 그가 오히려 말하기를, “그대 자신을 몸 된 (교회)에게 순종하라, 지상에 있는 이 유일한 조직이 사람에게 그릇된 지혜와 자부심으로 부패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 유일한 조직이 이 문제들에 대하여 야의 뜻으로 옳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부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또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행하여야 할 것을 선언한다.

### 3. 오늘과 내일의 새 달

이것에 대한 질문이 나에게 몇 번 왔다. “만일 새 달이 아주 중요하다면, 왜 십 계명에 포함되지 않았는가?” 더할 나위 없이 그것에 대한 대답이 간단하다. 십 계명이야의 성품을 반사하여 기록되었다. 시편 저자가 기록하기를,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니이다.’ (시편 119:142)

십 계명은 신부가 아닌 남편의 성품을 반사한다. 그분의 말씀들이 하늘에서 아주 잘 이루어진 것처럼 지상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며, 또 그분의 방식은 영원부터 영원까지다. 근본적으로, 그분이 명령하시고 - 그분의 방식으로 창조하셨을 때에는 죄가 없었다. 사람의 죄가 아주 성숙한 후에까지도 성경말씀에서 새 달이 언급되지 않았다. 만일 사람이 그 자신이나 그녀자신에서 아무 것도 찾아볼 수 없다면 자신을 “반성”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아담과 이브는 완전하였으므로, 새 달 의식을 적용할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이것이 완전한 십계명의 표준을 반사한다.

지금, 우리의 “눈이 열렸으므로” 우리가 우리의 별거벗은 것을 본다. (창세기 3:7)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었을지라도 영원히 죄의식을 소유할 것이다. 물론, 그곳에 죄가 없을 것이지만, 야쉬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가지고 계신 흉터가 있기 때문이다; 또 기록하였으되: “그 도성의 거리 한 가운데와 그 강의 양편에는 생명 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과실을 맺으며 달마다 과실을 내더라.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더라.” (계시록 22:22) 이사야 66장에서 말하기를 우주에 죄를-게시하여 새 달들을 지키게 될 것이고, 한 달에 한번, 일 년 열두 달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우리가 더 이상 우리자신의 죄를 반성하지 않게 될 것이지만, 항상 새 달이 우리에게 겸손 의식으로 영원히 상기시킬 것은 우리가 야쉬와를 신뢰하고, 또 생명나무가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부양하심을 명시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영원히 생존케 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여전히 지상에 죄가 있다. 이것은 역사상 실제로 알려지지 않은 가장 사악한 세대다. 소돔과 고모라의 지독함도 오늘날에 불의의 악취가 가장 높으신 보좌에까지도 새어 나간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고, 또 그들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이다. 천진난만한 자녀들이 공립학교들에서 진화론, 동성애 그리고 모든 방식의 철학들로 세뇌 교육되어 인간 지상주의로 잘못 인도되고 있다. 교회들까지도 고백하지 않은 무거운 죄 아래에서 갈광질광하면서; 가짜 은혜를 신뢰하므로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게 되고, 또 새로운 영에 이르지 못한다. 이것이 홍수 이전 시대처럼 우리에게 적절하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에 창대해짐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구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6:5)

우리는 어린양과 결혼할 준비를 하는 자들로, 대기하고 그분의 의를 좇아 항상 노력하여야만 한다. 한 달에 한번씩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모여야 하며; 우리가 우리의 세속적인 일로부터 안식하여야 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와 교체함으로, 야쉬와 우리의 구주께서 우리의 발을 씻기시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가 그분의 몸 된 교회에 단번에 침례 받고 들어갔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로 더럽혀진 이 세상 도로들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최후의 만찬에서도 (이것이 유월절로 수반하여 개최되었고 - 또한 새 달에 첫날로 계산되었다); 사도들까지도 그들의 새로운 왕국을 기다리면서 그들 자신들을 반성하였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리라.”고 우리 구주께서 말씀하셨을 때 ‘주여 그가 나입니까’라고 그들이 그들 자신들에게 질문하였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더럽혀진 죄를 항상 반성하고, 또 수치스럽지 않도록 행하여야 할 것은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잘못을 자백하고 치유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야고보서 5:16)

### 결론 : 그들이 동정들임

마지막날에 정결케 된 교회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불렀는데, 땅에서 구속을 받은 십사만 사천명 외에는 그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더라.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이니 이는 그들이 동정들임이라. 이들은 어린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로 하나님과 어린양께 첫 열매들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입에서 교활함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흠이 없기 때문이라.” (계시록 14:3-5)

바울이 말한 것들을 우리가 기억한다. 지상에서 오직 참된 여자가 영적인 문제들을 옳게 판단한다. 야쉬와께서 신부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또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리라.” (마태복음 18:18) 만일 교회가 이러한 문제들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갖추어지지 않았으면, 그것 자체가 반성하도록 한다 - 바울이 말하기를 참된 신부는 모든 것이 갖추어졌다고 하였다. 참된 신부가 아닌 가짜 여자들이 밖에 많이 있으며, 바벨론이 많은 딸들을 가지고 있다.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하였더라.” 솔로몬이 그의 지혜로 우리에게 경고하기를 “가짜 여자들”로 인하여 더럽혀지지 말라고 하였다. “타국 여인의 입술은 별집처럼 꿀을 떨어뜨리고, 그녀의 입은 기름보다도 미끄러우나 그녀의 마지막은 썩같이 쓰고 양날 가진 칼처럼 날카로우니라. 그녀의 발은 죽음으로 내려가고 그녀의 걸음은 지옥으로 접어드는 도다.” (잠언 5:3-5) “그러므로, 오 너희 자녀들아, 이제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들을 경청하라. 네 마음이 그녀의 길들로 기울어지지 않게 하며 그녀의 행로들로 그릇 되어 가지 않게 하라. 이는 그녀가 많은 사람들을 상처 내어 쓰러뜨렸음이니, 정녕, 많은 강한 자들이 그녀를 인하여 죽임을 당하였느니라. 그녀의 집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며 죽음의 방들로 내려가는 길이니라.” (잠언 7: 24-27)

그러나 우리는 동정녀들이어야 한다; 가짜 여자들로 인하여 더럽혀지지 않고 순결하여야 한다; 또한 마지막 큰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남편에 대한 지식이 없는 가짜 신부들 곁에 있거나, 그들의 등불에 기름이 없는 자들 가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야쉬와의 의에 옷을 입고 참된 신부의 멤버들로서 인침 받아야 한다. 그녀가 달 위에 서 있고.. 또 그녀의 변쩍이는 면류관에 12 별들이 있으며, 또 처녀들을 준비하여 신랑 앞에 설 수 있는 그 때까지 보호하고 돌보는 자들로부터 에스더가 “정결케 하는 것들을” 받아서 (에스더 2:9) 그녀 자신을 준비한 것과 같다. 그 때가 바로 가까이 되었고, 또 신랑이 서두르신다. 그 여자가 바로 하늘들에서 그녀의 자리를 취하여 서 있고, 또 결혼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이 가질 기쁨에 그 날이 멀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도, 안식일부터 또 다음 안식까지, 새 달부터 그 다음 새 달까지, (이사야 66:23) 우리가 우리 주께 예배드린다.

David. 데이비드.